

제목: "하나님의 길"

말씀: 창세기 24장 10-20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걸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1. _____하는 것입니다.
2. _____하는 것입니다.
3. 믿는 것으로 _____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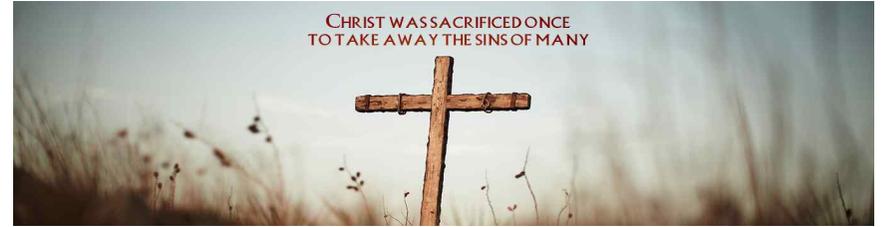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창세기 24장 10-20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Genesis 24: 10-20 구약 30 페이지 Presider
- 말씀 "하나님의 길"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선교지 한국)

막내아들과 모처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요즘 미국에 몰려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질문 한 가지를 받았다. 혹시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단 기간 얼마 동안은 살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가 이전과 같이 사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다른 질문을 하나 더한다. 왜 돌아가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느냐는 것이다. 갑자기 질문을 들으니 시원한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왜 일까? 미국 안에서도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는데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나온 한국으로 다시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거의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까? 미국보다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인가?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미국 못지않게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가? 그런데 그것도 서구 문화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앞서가는 일들도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의 문제인가? 생각해 보니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많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한 번은 선교사로서 생활을 꿈꾸는 터라 어느 나라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유독 한국은 제외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생각의 문제였다. 떠나온 곳이어서 많은 애착이 있지만 또한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라 부정적인 생각과 40여 년 전 한국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한국은 나의 마음에 제외시켰던 것이다.

아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날 늦게까지 생각해 본 결과 한국도 나에게 선교지 중에 한 장소로 극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선교사 임명을 받고 파송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외국인 자녀들과 탈북자의 자녀들 그리고 고려인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린 집에서 보내주시는 대로 건강식으로 먹이고 재우며 가르치고 복음으로 새사람 만들어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이 내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이 그리기도 하다. 그러나 말하는 만큼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그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앞드리고 있는가? 지금 한국에 대학생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그들 중 3%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속상해서 속이 뒤틀려야 정상이 아닐까? 앞으로 20년 뒤의 한국 교회가 벌써 보이기 때문이다 이민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겠지만 말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 내 자신이 설교하고 말한 것과 같이 나는 나의 고향 한국을 사랑하며 독립을 위하여 수고한 나라 선배들의 열심과 같이 한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다. 그 일의 연장이 이민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민을 떠나 온 우리는 한국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수고하여 부흥의 역사로 교회가 여기저기에 세워지고 행복한 믿음 생활로 인생이 변화하는 영적인 기적의 역사를 역 이민시키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디아스포라를 다시 한국으로 그 영향력을 이민 보내는 일을 하게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일어서려고 하는가? 어쩌면 한국을 가장 우선에 둔 선교지로 생각하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0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